

# 익산형 일자리 창출 올인

### 익산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 협약 5년 간 400억원 들여 신규 일자리 4000개 만들기로

익산시가 사상 최악의 코로나19발 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질 좋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속속 추진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위기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수치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고용 분야이다. 최근 몇 년간 넥솔론과 동우화인켐, 축림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폐업해 실업자 수가 지난 2018년 대비 5천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익산시 인구는 2015년보다 1만4,290명이 감소했다.

특히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고용위기가 협력업체가 위치한 익산과 김제, 완주 등으로 확산됐지만 군산과 달리 고용위기가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그 여파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흔들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익산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전북도와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간 1,0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앞서 익산시는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김제, 완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야별 회의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제안서를 제출했던 전국 19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지역 고용상황의 심각성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5년 간 400억원을 투입해 약 4천여개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올해는 50억원을 확보해 위기산업과 성장산업, 신산업, 거버넌스 구축 등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익산시는 위기산업에 자동차, 성장산업에 식품 분야를 선정해 보유 기술을 육성하거나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등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한다. 또한 신산업인 홀로그램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할 컨트론타워인 '고용안정 일자리센터'가 전국 최초로 들어선다. 센터는 기존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한계점을 보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방문자 위주의 수동적인 취업알선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단순 생산직에 일자리가 집중돼 양질의 일자리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센터는 익산상공회의소 1층에 들어서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 왕도역사관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테마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여행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8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익산시, 박물관 활용 관광 활성화 시동

### '테마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여행' 프로그램 공모 선정

세계문화유산 도시 익산시가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익산 왕도역사관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테마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여행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8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고백대강 박물관 여행(옛날 백濟로 가는 박물관 여행)'은 지난 3월 길청소년활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립익산박물관·왕궁리유적전시관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마름사지

와 왕궁리유적,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미션 수행형 체험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마름사지 석탑을 모티브로 한 소원할기탑 제작을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백제유물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백제 사람과 참여자를 이어주는 인연의 끈'을 제작하며 세계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밖에도 QR카드가 내장된 RPG 체험카드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세계유산을 더욱 흥미롭고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A형간염 예방접종 하세요

군산시가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을 인하한다.

군산시보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성인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백신구매단가에 따라 접종비용을 기존 3만9,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형간염 환자 발생은 2018년 대비 7배로 증가했으며, 봄에서 가을까지 폭넓게 발생하고 여름에 급증하는 양상이다. 또한 주요 원인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통한 감염인 것으로 알려져 여름이 되기 전에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접종 대상은 군산시민 중 A형간염 면역의 증거가 없는 2011년 이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은 한체접종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한아름찰벼 단지 52 농가 대기업과 5년간 계약재배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참여해 대기업과 5년간 계약재배를 맺은 52개 농가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시작했다.

올해부터 성당면 한아름찰벼 단지 52농가와 성당농협은 씨제이브이딩(주)과 5년 계약재배를 통해 한 해 105ha면적에서 생산하는 전량을 구매하는 벼수매 약정을 체결했다.

센터는 이에 따라 쌀 소득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성당 한아름찰벼 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아름찰벼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성당 농협에서 실시한 교육에서 한아름찰벼를 처음 재배하는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품종 특성에 따른 파종시기와 농약 사용법, 이앙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아름찰벼가 통일형 품종인 한아름벼와의 교배종으로 냉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5월 하순까지는 이앙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전용실시권 설정 품종이므로 생산과 수확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 사회단체 대표, 기부 릴레이 화제

### 정현을 익산시장 바톤 이어

익산시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동참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화제이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기부문화에 봄을 일으키고자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기부콜센터(☎ 1577-0072)에 지난 4일 익산 사회단체 대표들이 재난기본소득 기부 릴레이를 이어갔다.

유희숙 부시장과 김근섭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이 참석한 성금기탁식에는 최홍락 익산시 아동장년합회장 조홍찬 익산시 새마을회장, 경세광 익산시자율방범대연합회장 김진대 민주평통자문회의익산시협의회장, 유광수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장, 박정순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최홍락 이봉장 연합회장은 "익산시내 소외 사회계층 인사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가 코로나19 위기를 국

복하는 큰 물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순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회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부에 대한 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아 재난기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기부콜센터(☎ 1577-0072)에 지난 4일 익산 사회단체 대표들이 재난기본소득 기부 릴레이를 이어갔다.

본소득 기부 릴레이에 기여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부자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종합 관리에 나서고, 구축된 정보는 연도별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향후 시민대상과 모범시민상, 유공시민 등의 후보 추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정부 재난지원금 전액 지급”

### 익산시, 익산형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익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익산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대 규모 지원에 착수한다.

익산시는 지난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시작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익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한데 이어 정부 지원금 중 지자체 부담금 10%까지 추가해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우선 이날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2만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의

10%에 해당한다. 오후 5시부터 기존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한 계획이다.

현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시민들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형식이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관련 은행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8일부터는 익산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프트카드나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